

論山 皇華山城考

洪 再 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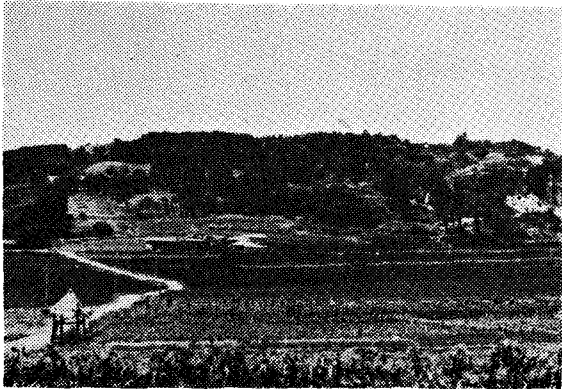
차 례

- | | |
|-------------------|----------------------|
| 一. 序 | (二) 土器類 |
| 二. 地理的 與件 | (三) 瓦當類 |
| 三. 皇華山城과 百濟諸城의 關係 | (六) 文獻에 依한 皇華山城 |
| 四. 山城의 現況 | (七) 所謂「王居東西二城」과 關連하여 |
| 五. 遺蹟과 遺物 | (八) 結語 |
| (一) 礎石 | |

一. 序

皇華山城은 그名稱¹⁾ “皇華”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山城의 位置나 性格을 파악함에 있어 重要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0年 以後 1980년까지 數次의 同 山城調査를 通하여 發見된 몇 點의 遺物과 遺構들을 綜合考察한 바 結局 現在 皇華山城에 남아 있는 遺構, 出土遺物 山城에 關한²⁾ 諸記錄과, 山城周邊의 地名等을 連結하여 볼 때 이 山城의 築成年代와 築城目的, 그리고 築城時의 地名및 이 地名의 變化過程까지도 推定할 수 있는 資料들이었으며 따라서 이 山城이 갖는 史的 地位가 他山城에 比하여 한층 重要한 位置임을 確認할 수가 있었다.



皇華山城(北에서 봄)

二. 地理的 與件

皇華山城이 位置한 論山은 鷄龍山의 많은南北 構造谷中の 하나로 이地域을 公州—論山 構造谷이라 稱할 수 있다.

論山 東北 鷄龍面에서 始作하여 魯城, 魯城 川流域으로 連結되는 溪谷은 天安—公州의 構造谷과도 連結되며 또한 이 溪谷은 옛부터 湖南地方과 京畿地方을 往來하는데 利用된 自

* 韓南大 講師

1) “皇華使” 皇華 等 君王과 有關.

2) 朝鮮王朝實錄 卷二四九 地理誌 忠淸道 恩津條.

然通路이다.

이 通路는 現在에도 天安—順川으로 連結되는 國道가 이 溪谷을 따라가고 있다.

다시 論山을 中心으로 山川의 分布를 보면 蘆嶺山脈이 論山의 東北인 豆磨에서 南西인 陽村을 지나 全北 完州郡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連山에서 이 蘆嶺山脈의 支脈이 西便으로 흘러들어 論山의 案山인 槃若山을 이루고 있으며 이 山에서 北便과 西便으로 丘陵을 形成하여 各各 論山의 花芝山과 皇華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現在의 論山은 山形으로 볼때 案山만을 南쪽에 두고 있는 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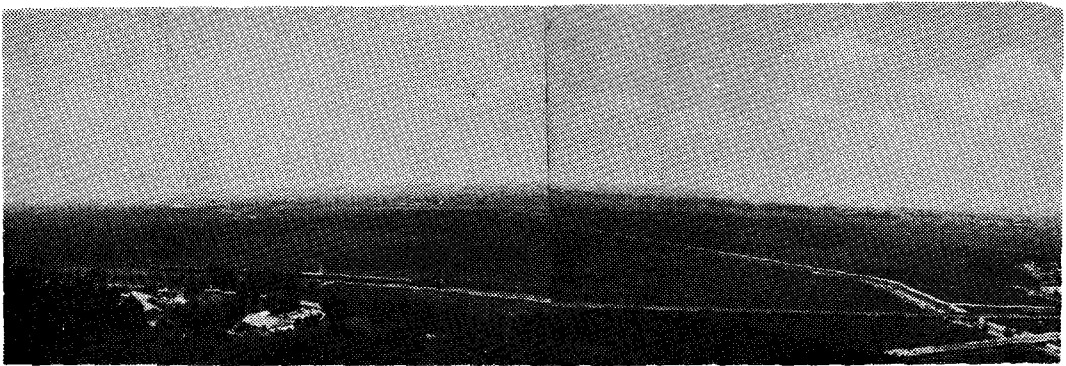
한편 錦江의 支流인³⁾ 論山川은 全北 運州에서 發源하여 陽村을 거쳐 論山邑 東南部에서 弓形으로 흘러 夫赤(論山郡)에서 連山川과 合流하고, 다시 論山邑 北東部인 合川(大橋洞~德池洞)에서 公州 魯城에서 흘러오는 魯城川과 合流, 西行하여 江景에서 錦江本流와 만나게 된다.

錦江은 忠南의 主峰인 鷄龍山과 車嶺山脈의 丘陵사이를 蛇行하고 있어 이 流域에 廣大한 準平原을 發達시키고 있고 下流에 와서는 扶餘—舒川 等地에도 河成의 冲積範圍原을 널리 發達시키고 있는데 이 範圍原을 包含한 錦江流域의 平野를 內浦平野 또는 湖西平野라 稱하며 車嶺山脈 以北의 禮唐平野와 함께 忠南의 二大 穀倉地帶로 불리워진다.

특히 內浦平野는 扶餘·論山·江景·舒川이 그 中心地를 이루고 全北 萬頂江과 東津江河口의 湖南平野에 連結되어 韓半島 最大의 穀倉地帶를 이루고 있다.

한편 錦江 下口는 江景—公州部近까지는 水深이 깊어 近代의 交通手段이 發達하기 以前에는 西海와 內陸을 잇는 이 地方의 有一無二의 內陸水上交通網이었다.

또한 湖南線 鐵道와 車輪交通의 開通以前의 錦江은 物資輸送에 있어 큰 比重을 차지해 이곳 가까이에 있는 江景이 한 때 湖南과 湖西一帶를 지배하는 商業 中心地로 繁昌하였었다.



皇華山城에서 본 論山平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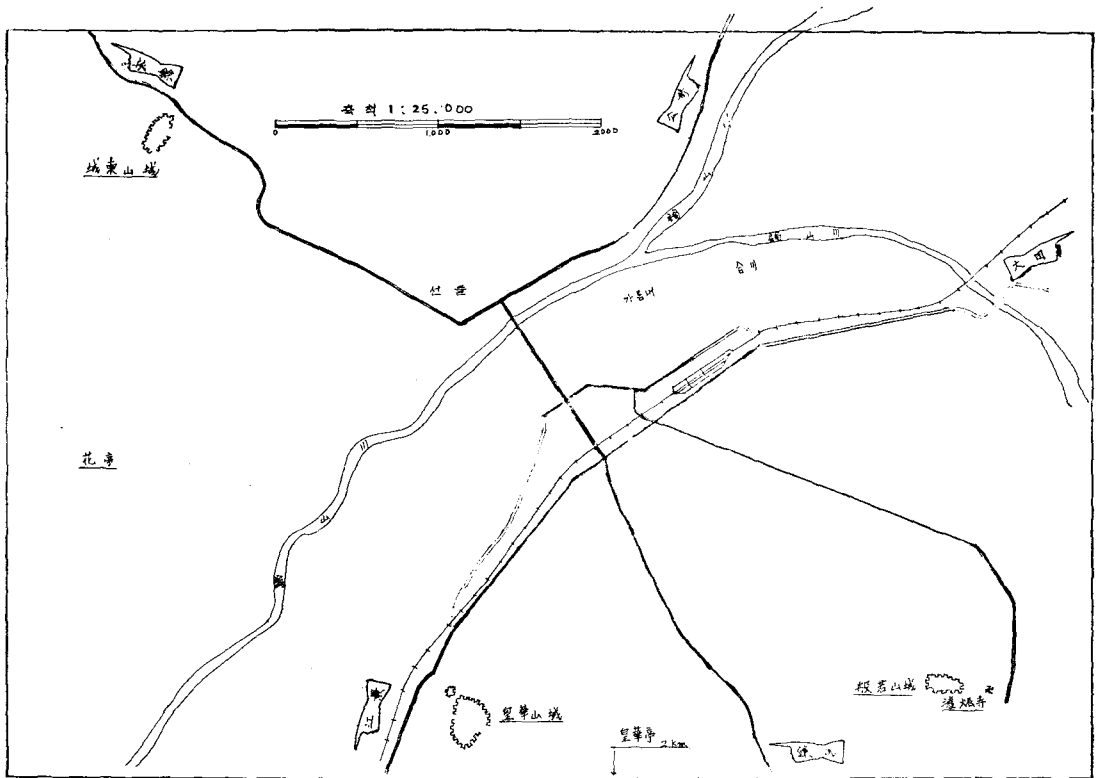
東國輿地勝覽 忠清道 恩津 山川條

大東地誌 忠清道 恩津條

春香傳

洪思俊「百濟城址研究」(百濟研究 第二輯 p.131)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3) 洪思俊「炭峴城考」(歷史學報 26, 37輯) 歷史學會



도면 1. 皇華山城 位置圖

論山은 內陸 水路와 湖西平野의 連結部位에 位置한 小都市이나 日帝時代 江景으로 부터 郡廳의 移轉과 扶餘神宮 造成工事로 因한 送輸路의 役割, 六·二五以後 陸軍新兵 訓練所가 部近設置되면서 急激한 經濟的發展이 이루어져 現在에는 忠南에서 經濟力이 豊富한 이 地方 중심 都市의 하나다.

三. 皇華山城과 百濟諸城의 關係

皇華山城은 論山邑에서 江景方面으로 1.5km 地點에 位置하여 行政區域상으로는 論山邑 燈華洞에 속한다. (도면 1)

이 山의 標高는 海拔 75m 의 낮은 丘陵으로 東南向은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比하여 西北向은 急傾斜를 이루고 있다. 山城의 築城은 山頂을 包含해서 東南의 丘陵을 利用하여 築造되어 所謂 “通谷形” 山城이다.

따라서 山城의 全體 모양은 西·北高·東·南底의 形態를 이루고 있다.

이 皇華山城의 周圍를 살펴보면 이 城의 築城當時 이 城과 特殊關係를 가질 것으로 추측되는 地名인 皇華亭이 이 山城에서 直線 4km 未滿의 東南方에 位置한다(現 論山郡 鍊武邑, 皇華亭里) 또한 百濟 東界의 要塞 註 3) 炭峴·錦山으로 通하던 連山 通路의 要路에 位置하고 있고 百濟時代에 中國

이나 倭國에서 百濟의 首都인 泗泚나 熊津으로 들어 올 때 西海에서 白江(錦江)을 通하여 갔을 것으로 보여져 이 水路邊에 皇華山城이 位置하여 都城의 關門의 性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쉽게 判明되어 진다. 前章에서 말한 바 湖西平野의 經濟的 重要性 또한 빼어 놓을 수 없는 重要事項과 관계 지어진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중요한 성격을 갖는 皇華山城과 隣近의 百濟時代 諸城과의 關係를 살펴보면 이 山城이 百濟의 要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卽 東便에는 槩若山城(論山邑 芝山洞)과 外城을 거쳐 百濟 東部の 要塞인 連山の 諸城과 連結되고 있으며, 南쪽 方向은 槩若山城을 經過하여 馬山城(鍊武邑 全谷里)에 이르러 現 湖南高速道路를 지나 高山에 接하여 있고 西南便은 錦江의 主要 交易場인 江景⁴⁾ 菜雲山城과는 4km 이내의 可視距里에 있다.

한편 이 성의 西 3km 地點에 位置한 城東城⁵⁾을 거쳐 石城山城을 지나 扶餘 錦城山城에 쉽게 이를 수가 있다.

여기서 扶餘 錦城山城에 對하여 살펴볼까 한다.

이곳은 錦城山이 國都泗泚의 中央에 位置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錦城山에 山城이 存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錦城山城이란 말이 생소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錦城山에 對한 築城의 記錄이 全然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錦城山에 城이 없다고 斷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現在 이 山 北西便에 築城의 痕蹟을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山頂에서 百濟時代 瓦片 陶器片과 거의 完形에 가까운 陶硯이 出土되어 이 山城內에 建造物이 存在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

錦城山城을 中心으로 할 때 泗泚의 羅城은 圓形을 이루고 있고 東便에 石城山城, 南으로 加林山城, 西는 浮山城, 西北은 蔚山城, 北便은 靑馬山城이 可視距離이며 加林山城을 除外하면 모두 2km 以內의 短距離로 都城 防備의 要所를 이루고 있어 이 錦城山이 諸城을 統守하는 地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환언하면 錦城山城과 東南으로 連結되는 皇華山城과 石城山城, 城東山城은 錦江과 論山川 防禦의 要地에 位置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便으로는 皇華山城에서⁶⁾ 魯城山城이 直接 連結되고 있어 朝鮮時代⁷⁾에도 이 城이 西海와 錦江 防衛를 爲한 主要山城으로 利用되고 있던 사실이 記錄되어 있다.

이처럼 皇華山城은 四通八達의 위치에 있어 前章의 水路와 平野의 利와 함께하여 百濟時代에도 매우 主要한 役割을 할 수 있던 要件을 모두 갖추고 있다.

4) 日帝時代까지 全國 三大市場으로 有名하며 西海 海產物과 內陸의 農產物 交易이 主流이었음.

5) 論山郡 城東面 葛山里 앞산.

6) 論山郡 魯城面의 鎭山

7) 「文獻備考」卷二十六 輿地考十四 恩津條

即 東方⁸⁾의 戰線으로부터 安定된 距離에 있으며 諸城과 近接된 位置에 있어 戰禍의 受難을 豫防할 수 있는 安定된 位置에 있다. 또한 論山川과 錦江流域에 發達된 넓은 平野를 통한 豐富한 經濟力은 이 山城의 地位가 確固했을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水路의 利는 外部와의 接觸을 容易하게 하여 이 城이 百濟時代에 갖고있던 重責을 充實히 遂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四. 山城의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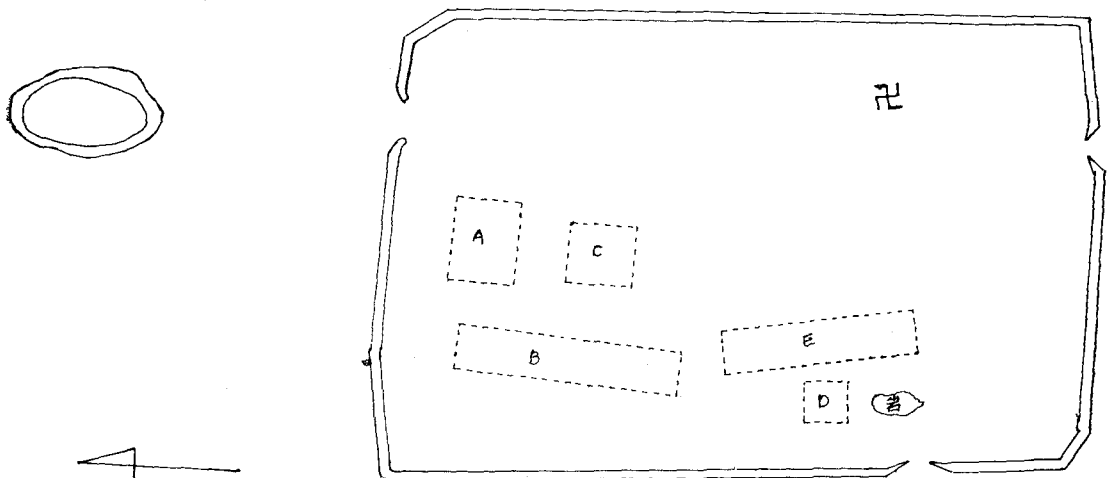
1960年⁹⁾ 이 山城을 實測한 數置에 依하면 總延長 3564m · 平均높이 約 2m로 東國輿地勝覽의 記錄과 거의 一致하고 있다.

百濟時代 이 山城을 築城할 때는 石築이었던 것이 其後 歲月이 經過함과 人爲的 破壞에 依하여 現狀은 약간 部分을 除外하고는 모두 石築이 없는 實情이다. 最近 皇華山城을 踏査할 때에 切斷部分의 地下에 石築이 있음을 確認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築城時에 石城으로 된 것이거나 또는 城의 基礎 部分만을 石築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現在 皇華山城은 外見上으로는 土石混築이다.

그런데 百濟時代의 築城方法은 크게 3種으로 區分할 수가 있는데

其一은 山頂上部와 周圍 陵線을 抱含해 넓은 面積을 갖는 築城方法으로 모든 城이 이에 該當되는 말일지 모르지만 有事時 隣近住民의 待避, 保護의 役割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城으로 當時 都市



도면 2. 皇華山城實測圖 8= $\frac{1}{200}$ 1960 논산교육청

8) 錦山, 沃川, 永同方面.

9) 論山教育區廳에서 實施함.

에 가까운 地點에 位置한 城으로 예를 들면 靑馬山城(扶餘邑), 石城山城(扶餘 石城面), 北山城(連山面) 등의 諸城이 있다.

其二는 孤立된 山頂上部에 築城하여 前後·左右의 城과 城間을 連結하였을 것으로 推定되는 城으로 名稱 또한 이를 표시하고 있다.

이른바 태메(岫) 臺는 시루피(甑山)란 名稱이 붙은 것으로 멀리서 보면 山頂上部가 칼로 자른것 같이 平平하고 城 自體는 小形이다.

扶餘 部近에서 예를 찾는다면 蔚山城, 浮山城, 盤山城(窺岩面)¹⁰⁾ 甑山城, 二重山城(鴻山面) 등이 이에 該當된다.

其三은 山頂上과 중턱을 連結하여 攻守의 便利를 爲한 築城방식으로 黃山城(連山面) 聖興山城(林川面) 彌勒山城(益山) 등이 이에 該當된다고 볼 수 있다.

本題의 皇華山城은 其一의 城에 該當되는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 皇華山城의 西門址와 南門址는 幅 約 2m의 遺構를 남기고 있고 東便 出入水口는 幅 約 4m의 廣幅인 遺構가 남아있다.

本 山城 北門址에서 東北便으로 約 60m 地點에 烽燧台址가 남아 있는데 現在에는 國旗 게양대로 使用되고 있다.

이 烽燧台址는 直經 約 16m의 圓形으로 築城 높이는 山城과 같은 2m 程度이다. 現在에는 土築만 남아 있지만 築造時에 石築이었던 痕跡을 여러 곳에서 發見 할 수가 있다.

山城의 內部와 外部가 모두 耕作地化 하면서 地下에 埋藏되었던 遺構들은 大部分 露出되어 住民에 依하여 原位置에서 移脫되어 大型 石材類를 除外하고는 모두가 山城 周圍에 흩어져 있고 손쉽게 移動되는 土器片이나 瓦片類 등은 무더기로 여기 저기 쌓여져 있는 實情이다. 운반이 어려운 礎石類들도(흔히 百濟 遺構들이 꺾어 왔던 것처럼) 人爲에 依하여 他處에 轉用되고 있는 狀態이다.

한편 烽燧台址 北便 約 50m 地點에는 石山의 發破作業으로 이 山城이 나날이 荒廢되어 잠은 뜻 있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한 깊은 歷史를 담고 있는 遺物, 遺蹟이 나날이 破壞되거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어가는 實情으로 이에 對한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하겠다.

五. 遺蹟 및 遺物

城 內部에는 六個所의 遺蹟址를 推定할 수 있는데 西南 頂上部에 直經 約 3m의 둥근 바위(도면 2, 岩)와 그 옆에는 나란히 東西 約 6m의 建物址가(도면 2, D)있는데 이 큰바위 위에 오르면 論山川은 勿論 錦江과 前述한 諸城들이 한눈에 들어 오는데 이곳이 바로 諸記錄에 나오는 “皇華台”¹¹⁾로 推定하여도 틀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10) 扶餘部 恩山面 金剛邊에 位置한 石城인.

11) 「東國輿地覽勝」, 「大東地誌」, 「輿地圖書」, 「文獻備考」등은 共히 「……敵津水百濟義慈王遊宴其上」라고 있음.

또한 이 建物址는 皇華台와 有關한 建物の 遺址로만 推定될 뿐이다.

이 台石에서 東으로 12m 地點과 南北으로 約 40m의 南向한 곳에 큰 遺構가(도면2, E)있는데 推定한 皇華台 아래 이 같은 規模의 南向한 遺構等의 2個所는 軍倉의(도면2, B)性格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建物址로부터 다시 東으로 50m 되는 곳에 東西로 約 18m의 西向의 建物址와(도면2, A) 이곳에서 西便 30m 되는 곳에 이와 거의 같은 規模의(도면2, C) 南向 建物址等 用途不明의 遺蹟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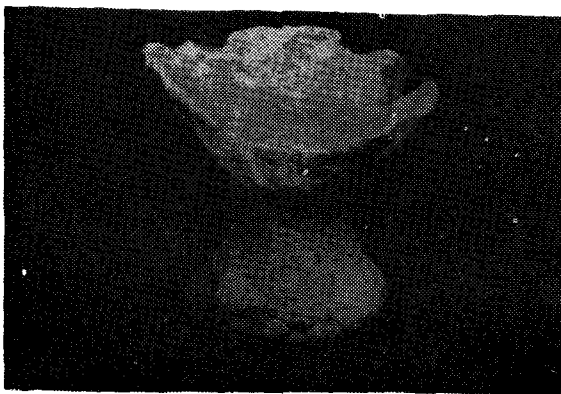
以上の 建物址들을 中心으로 하여 自然石을 利用한 礎石과 瓦片및 土器片들이 發見 되었는데 이 遺物들은 序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山城의 性格이나 年代等을 立證하는데 있어 貴重한 資料로 여겨진다.

(一) 礎 石

解放直後 이 山城의 踏査記錄에 依하면 約 30基의 礎石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이 山城에 있는 礎石은 不過 十餘基이며, 缺어진 二十餘基는 附近 住民에 依하여 他處에 轉用되었을 것으로 思料된다.

現存의 礎石들은 自然石을 突出部만을 適當히 잘라 礎石의 形態를 갖추고 있으며, 크기는 가로, 세로가 各各 60~70cm, 높이 60cm 內外의 大形礎石과 가로, 세로 30~40cm, 높이 40cm 內外의 小形인 二種으로 區別 할 수 있다.

이처럼 自然石을 一次 單純加工하여 礎石으로 使用하는 例는 百濟時代나 그 以後의 時代에도 可能한 일이라고 본다. 百濟에서는 國都 泗泚 以外는 이러한 方法이 一般적으로 使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例를 들면 金剛寺址(扶餘恩山面)¹²⁾ 깃대봉山城(連山)¹³⁾ 加尺里寺址(公州) 公山城等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고 더우기 國都 泗泚에서도 自然石으로 礎石의 一部를 充當한 곳이 있다(靑馬山城內 百濟建物址).



白華山城發見土器片

이와 같은 自然 礎石들이 皇華山城內에서 많은 數가 發見되는 것은 이 山城이 重要한 位置에 있었던 것을 立證해준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皇華山城 自體가 百濟國에서 없어서는 안될 重要한 役割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二. 土 器 類

이 山城에서 發見되는 土器類는 모두 破片들로 大部分이 百濟時代의 것으로 보여지

12) 論山郡 連山面의 百濟山城

13) 公州郡 灘川面의 百濟寺址

며 百濟時代 以外の 器類는 朝鮮時代 後期의 것으로 推定되는 몇 片 以外에 거의 없는 實情이다. 이곳에서 發見된 百濟土器類는 그 種類가 多様하다. 大甕에서 坩, 高杯類에 이르기까지 모두 破片들인데 이 中에서 特異한 例단을 紹介코자 한다.

이곳 器片 中에서 他地와 다른 特異한 것은 高杯이다. 이 高杯는 赤褐色으로 比較的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였으나 물레(轉轆)를 使用한 痕蹟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구운 熱 또한 底熱인 듯하다.

高杯의 높이는 9.3cm, 口經 10.4cm, 底經 7.6cm, 腰經 4.2cm 로 百濟時代의 土器로는 小形土器에 속한다.

그릇의 表面이나 內部에는 어떠한 裝飾이나 紋樣이 없으며 받침(台部)部分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까지 發見된 百濟時代 土器類에서 흔히 보여지고 있는 器身部の “삿자리”紋樣이나 台部の “△形” 孔口가 뚫려 있는 土器의 製作樣式과는 많은 差異를 나타내고 있고 土器의 製作技法 또한 拙劣하여 口部와 台部를 別途製作하여 다시 結合시키는 平法을 取하였으므로 그릇 自體가 투박하게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百濟時代의 土器는 公州地方이나 扶餘地方에서 흔히 發見되고 있는 土器와는 判異한 特徵을 가지고 있다.

京畿道¹⁴⁾ 漢江을 中心으로 하여 發見된 百濟土器中 이와 비슷한 製作方法과 特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어 百濟時代土器로는 比較的 初期의 樣式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地方 邑의 原因으로 因함인지, 또는 製作年代의 問題인지는 研究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其他 土器들은 扶餘附近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는 土器類로(寫眞參考) “삿자리紋壺” “坩台” “大甕等의 破片들이다.

三. 瓦當類

이 山城에서 出土되는 瓦當類는 크게 2種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其一은 百濟時代 蓮華紋 甍막새와, 其二는 在銘瓦들이다. 이 在銘瓦는 百濟時代것으로부터 朝鮮初期에 이르는 各 王朝時代의 瓦片들로, 前述한 바 있는 이山城의 性格과 年代의 推定에 重要한 資料들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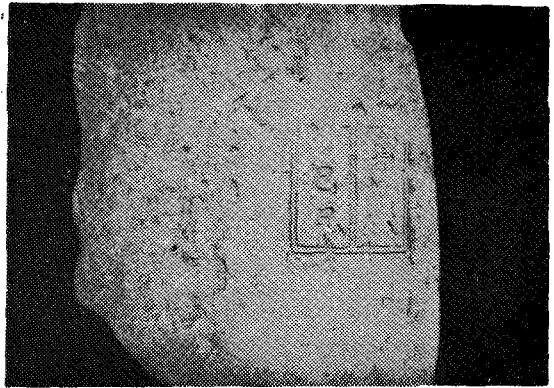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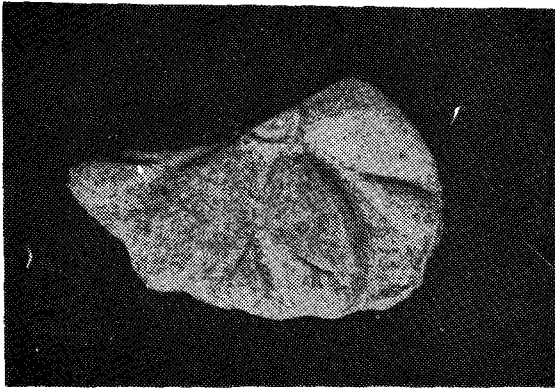
其一의 蓮華紋瓦當은 破片으로 몇 點 發見되지는 않았는데 이 紋樣은 모두 同一한 形態이다.

蓮華紋 甍막새片인 이瓦當의 復原 數置는 直經 12cm, 厚 1.7cm 이며 周緣部는 破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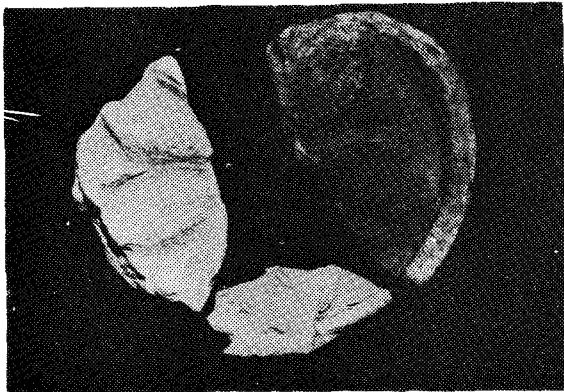
또한 이 瓦의 빛은 다른 百濟瓦當과 같이 灰褐色이며 精選된 胎土를 使用하였다. 直經 2.5cm의 蓮子房은 그 안에 따로이 蓮子が 없이 直經 2cm의 圓을 陽刻하여 한겹 둘렀을 뿐이다.

蓮瓣은 單葉 六葉으로 長 5.5cm 最大幅 3.3cm 로 끝이 뾰족한 타원을 이루고 있고 蓮花瓣의 形態는 反轉없이 두드러지게 솟아 있으나 紋樣은 없다. 辨端은 外廓線이 그어져 있고, 子房과 蓮瓣은 連結되어 있고, 辨終末部 左右에는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蓮花紋을 直經 1.5cm 點으로 配置하고 있어 百濟時代 蓮花紋으로는 特異한 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14) 金和英「韓國의 蓮華紋研究」(歷史學報 34)



皇華山城 瓦片



龍井里芑亭發見瓦片

그런데 이와같은 性格을 가진 瓦當이 西紀 1974年 가을 以後 扶餘邑 龍井里(芑亭部落) 青馬山城內에서 每年 不法으로 百濟蓮花 文막새 瓦當이 多數 搬出되었는 바 이 搬出 遺物을 確認하는 現場에 調査次 갔었는데 이때에 많은 막새瓦 中에서 皇華山城 發見의 막새瓦와 同一한 紋樣의 瓦當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以外에는 京畿道¹⁵⁾ 廣州郡에서 出土된 것으로 傳해진 것이 이와 같은 係統의 樣式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 瓦當은 얼핏 보아 高句麗瓦當이 아닌가 할만큼 強한 北方係要素를 보이는 高古한 樣式이다.

이 瓦當의 製作年代에 對하여 여러분의 助言을 종합해 볼 때 國都를 熊津에서 泗泚로 遷都한 西紀 6世紀의 時期를 下限線으로 推定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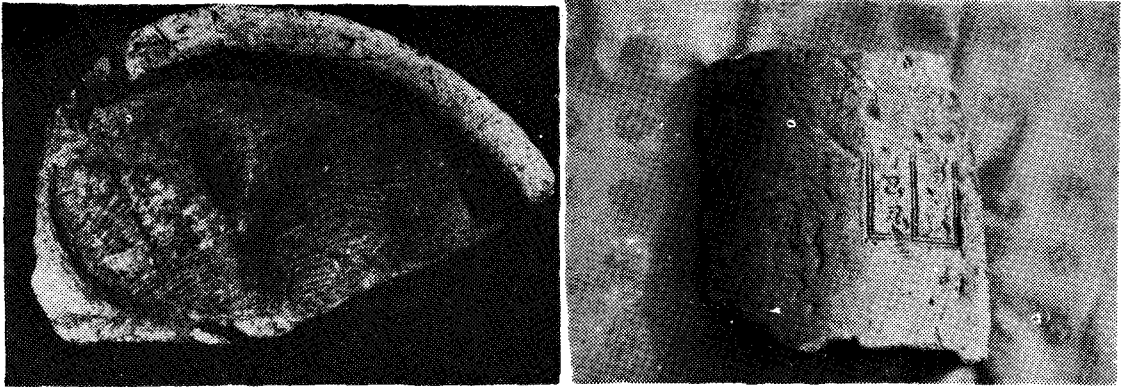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까지의 百濟時代 遺構中에서 蓮花紋 莫斯瓦가 發見되고 있는 곳은 例外없이 寺院址이거나 宮城址로 推定되는 場所와는 窯址 뿐이어서 이 皇華山城이 바로 百濟時代 宮城址에 該當할 만큼의 重要性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其二의 在銘瓦當은 三種의 銘이 있는데 이 中에서 百濟時代 銘瓦로 推定되는 銘瓦가 二種, 麗末 鮮初의 時代로 推定되는 銘瓦가 一種이 있다.

먼저 百濟時代로 推定되는 銘瓦는 「葛那城丁巳瓦」란 銘文과 「笠乃」란 銘文이 있는 二種의 瓦當으로, 먼저 前者에 對하여 말하겠다.

이 瓦當들은 女瓦로 三點이 發見 收拾되었는데 이 中 一種은 이미 日帝時代에 發見되어 江景山

15) 上揭書



皇華山城 發見 “葛那城丁巳瓦”銘

陽國民學校에서 陳列된바 있다고 傳하고 있다.

이 銘紋瓦는 그 製作에 있어 百濟時代 瓦當의 特徵인 精選된 胎土를 使用한 點과, 뒷면은 가는 (細) 삼베(麻)를 利用하여 製作하고 比較的 他時代의 瓦當에 比하여 낮은 熱로 구워내어 灰褐色을 나타내고 있어 扶餘地方에서 發見되고 있는 瓦質과 同一하다. 또한 百濟時代에 있어서도 扶餘期의 初年期로 推定되는 官北里, 雙北里, 青馬山城等의 出土 瓦當과 同質의 瓦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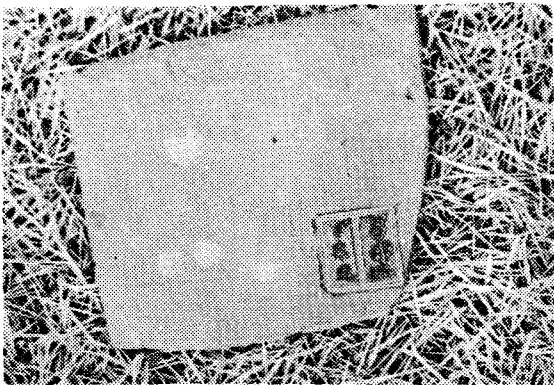
이 銘瓦는 그 一部가 斷切되었으며 長邊 4.5cm 되는 部位에 4.5cm×4.7cm의 長方形 陰刻線을 二回 두르고 中央에 同一한 陰刻線을 그어 兩分하였다.

兩分된 內部에는 上, 下 1cm 되는 크기의 글씨로 右便에 「葛那城」三字를 左便에 「丁巳瓦」三字를 亦是 陰刻하였다.

百濟의 銘文瓦中 扶餘地方은 特히 그 數나 量에 있어 他郡邑址를 凌駕하고 있는데 그 大部分은 一定한¹⁶⁾ 地域, 또는 方位(褐那城·前部·後部等)를 表現하고 있는 것과, 다른 한 面은, 十二干支(辰午·等)를 表現한 것이 있는데 이 十二干支는 製作年代와 有關한 것으로 推定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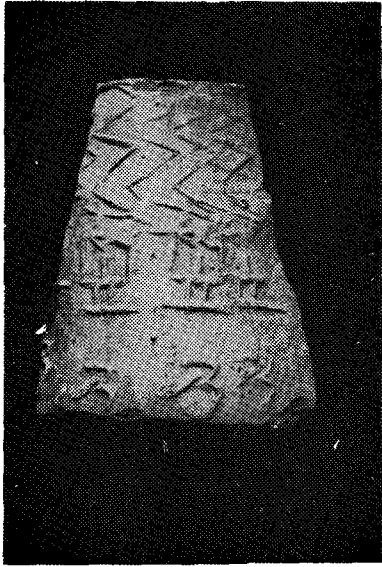
또다른 銘文의 種類는 年代와 人名(午, 斯)을 함께 表記하고 있는 것 등으로 大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瓦當의 銘文中 「葛那城」은 前記의 三例中 地域名에 該當된다고 볼 수 있으며, 後述할 諸文獻의 記錄과 比較하여 볼 때 皇華山城이 있는 論山地方의 百濟時代地名인 「芻乃」와 同音異字임을 쉽게 알 수 있



扶餘 發見 上同銘瓦

16) 輕夫慈恩 「百濟印刻銘瓦에 對하여」 拙稿 「百濟泗泚城의 研究」



皇華山發見 “笏乃”銘

어 이 瓦當을 製作할 當時에 皇華山城을 中心으로 한 이곳 地名이 袞那(褐那, 加乙乃)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袞那城에 對하여는 다음 章에서 仔細히 論할까 한다.

다음으로 製作年代에 該當할 것으로 思料되는 “丁巳瓦”의 丁巳年이 百濟 어느 時期에 該當될 것인가 하는 問題點이 있다.

그런데 이 袞那城銘의 在銘瓦가 瓦質面에서 前章 蓮華文瓦當과 同質의 瓦當으로 判斷되고 있으며 또한 이와 同一性格의 瓦當들이 扶餘地方에서 많이 發見된 點과, 扶餘에서의 發見場所가 特殊地域의 限定되고 있는것 등을 綜合해 볼때 여기의 “丁巳”는 公州에서 扶餘로 遷都한 聖王 年間의 時代로 推定이 可能하며, 여기에 基礎를 두어, 正確한 年代를 推定하면 聖王十六年(五三八年)으로 推定함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므로 이 瓦當은 六世紀 前半 編年을 갖는 役割을 充分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와 同一한 質과 銘을 가진 瓦片 一點이 扶餘博物館에서 保管 陳列되고 있다.

扶餘博物館 遺物臺帳에 依하면 이 同一한 銘瓦는 『傳雙北里 現扶餘女高』라 記錄되어 있다.

筆者가 考察한 바에 依하면 扶餘出土의 「袞那城銘」瓦와 皇華山城 發見의 「袞那城銘」瓦는 瓦質뿐 아니라 瓦當의 色彩, 글자의 크기까지도 同一한 것으로 보여 이 皇華山城 發見 瓦當의 製作處가 扶餘일 것으로 思料된다.

이 皇華山城의 發見으로 袞那城銘瓦의 製作處가 扶餘일 것으로 推定되는 몇 가지의 理由는 다음과 같다. (一) 扶餘, 公州, 益山을 除外하고는 이같은 良質의 百濟瓦當이 아직 發見된 例가 거의 없다는 것과 (二), 前述한 바와 같이 皇華山城에서 發見된 蓮華文瓦當은 宮城, 寺刹址에서만 보이고 있는데 反해서 特例적으로 이 皇華山城에서 蓮花文瓦當을 使用된 點으로 미루어 보아 이 山城이 百濟 時代 매우 重要한 役割을 했을 것으로 推定할 수 있고 (三) 扶餘에서 이 皇華山城까지 相距가 短距里(18km)로 水路(錦江과 論山川)를 利用하기가 比較的 容易하였다는 點 등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1970年度에 國博에서 發掘한 바 있는 百濟最大의 瓦窯로 推定된 (靑陽郡 靑南面)旺津里의 百濟窯址가 錦江邊에 位置하고 있어 이 當時 瓦當의 輸送方法이 水路를 利用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이곳 旺津의 位置가 扶餘보다 約 3km 가량 上流에 있다는 것 또한 偶然이 아닐 것이다. 結局 皇華山城에서 發見된 銘과 同一한 銘의 瓦當이 扶餘에서 發見된 것은 扶餘附近에서 皇華山城 用으로 製作된 瓦當의 一部가 國都의 어느 建物에 使用했을 것으로 推定함도 可能한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同一한 百濟時代 瓦片中에서 “笏乃”란 銘文이 있는 瓦當은 前述한 銘瓦보다는 數的으로

많은 十餘片이 發見되었다.

이 瓦當은 같은 百濟瓦이지만 前記의 瓦當보다 더 짙은 黑褐色을 나타내고 있으며 前者보다 더 거친 胎土를 使用하였을 뿐 아니라 뒷면의 삼베(麻)발 또한 前者보다 굵어지고 있다. 이 瓦當은 厚 1.5cm 내외의 숫기와(夫瓦)와 암기와(女瓦)들이다.

銘文은 表面에 「笠乃」를 여러 줄로 나란하게 浮刻되었는데 이 瓦當은 前記한 葛那城銘瓦보다 精誠面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이런 種類의 瓦當은 百濟末期에 一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瓦質이다. (扶餘의 錦城山 寺址, 場岩面 등에서 發見되고 있고 大量生産이 그 理由일 것으로 보여짐).

또한 國都를 除外한 邊方城址에서 發見되는 瓦質과 同質瓦이다.

그러므로 前記의 葛那城銘 瓦當은 皇華山城用으로 國都인 泗泚(扶餘)에서 製作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는데 比하여, 이 “笠乃”銘의 瓦當은 거친 胎土와 未熟한 製作技術等を 參考하여 볼 때 現地에서 製作·使用되었을 것으로 思料할 수 있다.

그런데 銘文 “笠乃”는 前者인 “褐那城”의 葛那와 有關함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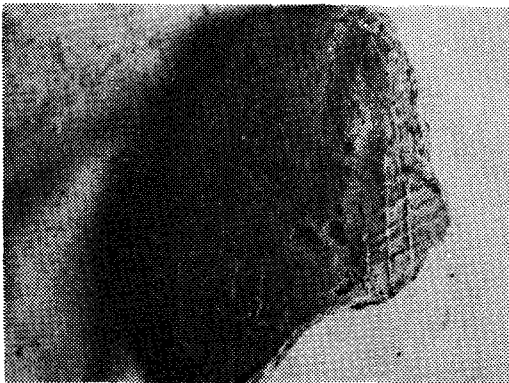
褐那와 笠乃의 關係는 褐那로부터 笠乃가 온 것으로 보인다. 卽 時代에 있어 前者가 後者보다 앞서고 있으며 葛那가 어떤 物名이나 地名의 性格을 갖는데 比하여 笠乃是 葛那의 音寫로 보여진다.

卽 原名稱이 葛那이었던 것이 百濟末期에 笠乃로 그 表記가 變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同一한 皇華山城을 指稱하는 名稱이 百濟 瓦當에서 나타난 바에 依하면 表記法上으로 最小限 一回의 變革을 가져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一種의 銘文瓦當은 前記 兩瓦當과는 달리 짙은 黑褐色을 띄고 있어 羅末麗初에 一般적으로 使用된 瓦當으로 推定되기도 한다.

이 時期의 瓦當이 갖는 共通點은 瓦當이 百濟의 그것에 比하여 重量感을 갖고 있고 두께(厚)가 두터우며 매우 거친 胎土를 使用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뒷면의 반침삼베(麻)의 울은 더욱 굵어지고 高熱로 구워내어 짙은 黑褐色의 色彩等이 이 時代 瓦當의 特徵으로 말할 수 있는데 “立乃”란 銘이 있는 瓦當이 위와 같은 경우이다.



皇華山城 發見 “立, 立乃”銘瓦

이 瓦當은 1.8cm~2.0cm의 두께를 갖고 있으며 2.3cm×3.5cm되는 長方形 陰刻板에 “立乃” 또는 “立”이라 浮刻되어 있다. 上下의 字經은 모두 2cm로 이 瓦銘의 立乃是 前記의 “笠乃”와 同一한 發音을 갖고 있다.

그러나 笠乃와 立乃 사이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갓내와 입내가 되는 셈이다. 이는 百濟의 發音 갈래(葛那)가 갓내(笠乃)로 변하여 百濟時代 後期까지 내려와 羅末麗初에 다시 立乃(입내)로 變化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論山地方의 地名이 羅末·麗初에 와서 完全한 漢字式 表記法을 使用하였음을 意味하고 있다고 推定된다. 그런데 皇華山城 發見의 銘文瓦當에 나타난 銘文의 地名이 論山地方에 現存하고 있어 關心을 끌고 있다.

論山 北便 論山川을 건너 扶餘—公州로 連結되는 긴 橋梁이 있는 곳을 大橋洞이라고 하는데 이一帶의 地名이 가름내라 부르고 있으며 이 橋梁 건너 평야가 있는데 이를 甸들이라 稱한다.

또한 論山川 上流의 現 陽村을 인내라 呼稱한다.

여기서 現存 地名과 皇華山城 發見의 在銘瓦當의 銘文과 相通點을 찾을 수 있다.

其一은 가름내와 인내이다.

地名變化表

時代 書名	百濟時代	統一新羅時代 (景德王十六) 757.	高麗時代 (顯宗九) 1018年	朝鮮時代				備考
				1397年	1419年	1646		
				太祖 六	世宗 元年	仁祖 二四	孝宗	
三國史記	加知奈縣	市津縣 (德股郡領縣)						
高麗史	加知奈縣 加乙乃 薪浦	市津 (德恩郡縣)	市津(浦屬)					
世宗實錄地理志	加知奈縣	市津縣 (德恩郡領縣)	市津縣(公州)	德恩	恩津			世宗實錄 卷 249 地理誌 忠清道 恩
東國輿地勝覽	加知奈縣 加乙奈縣 薪浦	市津縣 (德股郡縣)	市津縣	德恩	恩津	PS 古市津	在皇華 山西南	忠清道 津
大東地誌	加知奈 加薪浦	市津縣 (德股郡縣)	市津縣(公州)	恩津	恩津	恩山	恩津	忠清道 津
燃藜實記述	加乙奈縣 薪浦	市津	市津	德恩	恩津	恩山	恩津	
東國文獻備考	加知奈 加乙乃 薪浦	市津	市津縣	恩津 (屬縣) 公州		십문	?	卷16 輿地考 신문(新聞)
出土瓦堂	葛那城	笠乃	笠乃	立乃			?	(?)
現地名	가름내 (논산읍 대교동)	뫼개(草浦) (논산읍 덕지동)		甸들, (城東面)		셋강 (論山州)		인내 (現陽村)

가름내와 인내는 全然 無關한 것으로 보이지만 在銘瓦의 葛那(갈래)와 笠乃(갓내) 그리고 立乃(입내)를 關聯지우면 갈래(葛那) 이던 初期의 名稱이 現存 가름내와 相通되고 있다.

갈래는 笠乃(갓내)로 變化되었고 笠乃가 다시 立乃로 羅末麗初에 變化되고 있음은 既述한 바 있다. 이 立乃라는 名稱은 들로 分離되어, 論山川邊에 선들이란 地名으로 現存하며, 또하나의 立乃是 論山川을 따라 逆流하여 現陽村에 인내란 地名으로 殘存하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다.

특히 人내(=陽村)는 忠南 內陸平野와 全北 北東部 山岳地方의 交易場으로 有名하여 現在에도 이곳의 “市場”을 陽村場이라 하지않고 “인내장”이라 稱하고 있어 古來로 부터 皇華山城下에의 論山川 中心의 交易 活動이 論山을 中心으로, 上流의 論山川인 “陽村”과 論山川 下流와 錦江의 合流地인 “江景~彩雲”으로 兩分되어 前者는 內陸 交易中心으로, 後者는 西海岸과 錦江中心의 交易活動으로 分離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論山 地方의 地名은 現 論山의 地名인 “論山”이란 名稱이 百濟時代의 連山을 指稱하던 黃山에서 由來된 것이 確實하다면, 論山 原來의 地名인 葛那가~立乃~인내로 變하여 現 論山을 中心으로 하여 가름내 人내 선들로 殘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인내의 경우는 論山川을 따라 黃山과 地名이 交換되어, 黃山이 葛那의¹⁷⁾ 位置에 와 있고 葛那가 人내로 變化하여 論山川 上流로 逆流하여 이地方의 特殊한 地名 變革을 알아 볼 수 있다.

六. 文獻에 依한 皇華山城

文獻에 나타난 論山地方의 地名變化는 下記 一覽表에서 보이는 것처럼 百濟時代以後 各王朝를 지나는 동안 多樣한 變革을 가져왔다.

卽 百濟時代에는 「加乙乃」, 「加知乃」, 「薪浦」이었던 것이 新羅統一期の 景德王時의 (漢化政策으로 인한 것으로 思料되지만) 變化는 「市津」으로 改稱되었고, 이 市津이란 名稱은 全麗朝를 通하여 使用되어 朝鮮時代에 들어와서는 郡縣의 併合, 廢合 등으로 德恩, 恩津으로, 그리고 韓末에 와서 論山이란 地名이 使用된 以後 日帝時代 江景·連山·恩津·魯城 등이 併合되어 今日의 論山에 이르렀다.

「加知奈~加乙乃~薪浦~市津~(德恩)~恩津~(恩山)~論山」의 順으로 變化되었다.

諸 文獻에 百濟時代 使用된 地名인 加知奈와 加乙乃是 皇華山城 發見 銘瓦의 葛那城과 相通하고 있으며 現論山邑 大橋洞 一帶의 가름내와 同一한 音係임을 이미 前章에서 말한 바 있다.

一般的인 知識으로 語文學 關係를 말하는 것은 失禮이나 이곳 名稱이 皇華山城과 깊은 關聯을 갖고있어 이에 對한 意見을 말하고자한다. 百濟時代의 이곳 地名이 單音節인 가지내(加知奈)에서 갈내(葛那, 笠乃)로 變化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笠乃란 地名을 薪浦라 表記한 곳이 있어 關心을 끈다.

笠乃是 卽 葛那란 말이 되므로 글자 그대로의 “갓내村”임을 말하고 있다고 보며 薪浦란 이 笠乃(=葛那)의 漢字式 表記方法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前記의 갈내가 特定地名을 指稱하고 있음에

17) 洪思俊 「百濟城址의 研究」(百濟研究 2 輯)百濟研究 二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比하여 薪浦는 現 論山川을 意味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薪浦를 우리말 方式으로 還元시켜보면 갈내, 섭개, 새개 새내 등이 되는데 이들 中에서 새개는 自然 색강으로 말할 수 있는데 現在 論山 住民들이 論山川을 색강으로 呼稱하고 있어 薪浦란 意味 또한 論山川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百濟時代以來 論山川邊에 集中的인 交易活動으로 인한 都市의 形成은 可能的인 일이 있을 것이며 이 都市가 薪浦인데 景德王代에 都市의 機能的인 面을 中心으로 漢字式改稱이 市津이란 地名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 都市의 交易에 對하여서는 與地勝覽恩津條에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理由 以外에도 우리말의 地名을 漢字式으로 表記함에 薪浦의 薪이 市로 表記 發音되는 例가 있다. 一例로 月城郡 乾川의 작은 平野는 薪野로 記錄되고 있는데 薪의 發音은 시 또는 십으로 發音하고 있어 薪과 市는 同一系列의 音係로 보여지며 薪浦가 市津으로 表記되는 것은 可能的인 일로 보인다.

그러므로 薪浦가 市津으로 變化 되는 것은 市場의 發達에도 그 原因이 되겠지만 더 重要하게 생각 되는 것은 薪을 市로 表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市津은 皇華山城西南部인 彩雲面의 論山川邊을 말하고 있다고 傳하고 있다.

統一新羅時代 市津으로 改稱된 以來 이 市津이란 地名은 全 高麗를 通하여 呼稱되었고 其後 朝鮮朝 太祖六年 現 恩津의 舊名인 德恩에 歸屬되어 世宗年間에는 德恩·市津을 併合 恩津으로, 同仁祖代에는 恩山으로 되었다가 孝宗朝에 다시 恩津으로 還元된 以後 韓末에서 現在까지 黃山에서 由來된 論山이란 地名을 使用하고 있다.

七. 所謂“王居東西二城”에 관하여

以上에서 皇華山城의 發見遺物과 이山城周衛의 地名等を 連結하여 檢討하여 보았다

그런데 「東國輿地勝覽」¹⁸⁾에 「……號皇華台百濟義慈王遊宴其上」이란 記錄이 보이고 있는데 이와 同一性格의 記錄이 “輿地國書”에도 보이고 있다.

이에 兩書는 「御上山……義慈王遊憩地故名」등이라 말하고 있어 이山城과 百濟王과 關係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記錄이다.

皇華山城에 對한 傳說은 “百濟王이 朝會를 보았다”고 傳하고 있어 前章의 遺物들과 記錄, 傳說等을 綜合하여 볼 때에 이 皇華山城이 百濟國王과 直接, 間接으로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發見된 많은 百濟城址 中에서 都城이나 彌勒寺址가 있는 金馬以外에 이山城처럼 百濟國王과 關係記錄과 傳說을 갖는 城址는 없으며 오직 이山城만이 例外的으로 百濟國王과 關係를 가지고 있다. *

이런 諸般與件은 이山城이 百濟의 離宮의 性格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憶測을 하여 볼만도

18) 「東國輿地勝覽」 忠清道 恩津 山川條 市津浦

하다.

그런데 中國側 史書에 “百濟王이 東西의 二城에 居住한다”라는 記錄이 있어 注意를 기울이게 하고 있다.

卽「……其王所居東西兩城……」¹⁹⁾이라는 記錄과 「……王居東西二城……」이란 同一한 性格을 갖는 記錄이 있다.

上記의 兩史料를 檢討하면 「其·所」의 두 字를 畧하고 “兩”字가 “二”字로 記錄되고 있다.

結局 意趣도 同一할 것으로 보아도 無理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의 史書인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이렇다할 記錄이 全然 보이지 않고 있음은 우리의 史書에 記錄됨이 없다하여 中國側의 記錄이 虛偽의 것으로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古史가 疏漏함을 充足키 爲한 方法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三國時代 史料中 百濟의 部分은 特히 疏漏하여 他國의 史料에 依存하고 있는 部分이 相當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史料가 不足한 것과 文化程度와는 別個의 事項으로 생각되며, 이는 解放以後 發見된 文化遺蹟과 이에 對한 諸賢의 努力에 依하여 百濟의 文化程度가 밝혀지고 있고 學界에 公認되고 있는 事實이다.

上題 「王居東西二城」도 비록 우리 史書에는 보이지 않으나 與他方法으로 이 城의 位置를 批定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먼저 百濟時代에도 이 兩城이 公州王都時代에 屬하는 「二城」인지 扶餘遷都以後의 “二城”인지를 確認해 보자.

이들 兩書의 內容은 百濟後期 印 武王年間 以後의 事實들의 記事로써 當時의 國都 泗泚인 扶餘를 中心으로 하여 이 問題를 解明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公州 都邑期의 東西二城에 對한 可能 與否를 알아볼 必要가 있다고 보는데, 公州 都邑期는 (一)政治的 不安期였다고 볼 수 있다.

外侵으로 因하여 南遷을 強要當한 以後 文周王에서 聖王時 泗泚 定都時까지 五代六四年間의 諸王中 二王이 扞害로 因하여 死亡하였거니와 解仇와 燕信의 叛亂(文周王)과 苜加的 叛亂(東城王)等 王位 繼承을 中心으로 한 中央 政治의 不安으로 因하여 別途의 城을 築城할 餘力이 없었을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二) 地理的으로 公州에서 東西二城을 求하려면 東便은 現大德郡 方向과 西便은 靑陽郡 方面에서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百濟時代의 諸城 中에서 適當한 城址가 現在까지 不可知이다.

(三) 公州를 中心으로 東西 兩地域이 모두 山陝이 險하고 交通이 不便하여 國王이 巡駐할 地域으로는 不適當한 곳이며,

(四) 中國史書의 記錄內容이 大部分 泗泚 時代의 事項들을 記錄하고 있어,

(五) 百濟王과 傳說을 갖는 記錄이나 傳說을 이 兩地方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등을 들 어볼 수 있겠다.

以上 公州를 中心으로 한 東西 兩方向의 城址에 對하여 檢討하여 보았다.

19) 舊唐書, 百濟條「二十五史抄」p. 195(檀國大學校附設東洋學研究所)

그렇다면 다음 王都인 泗泚時代의 百濟에 對하여 알아보자.

이 時期의 百濟는 政治的 安定을 바탕으로 하여 經濟的 繁榮이 文化發展을 가져와 他二國을 凌駕하여 倭國의 鳥飛文化와 이웃 新羅文化의 淵源을 이루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면 泗泚를 中心으로 東西兩城의 可能性을 찾아보자.

(一) 扶餘는 公州에 比하여 野地이며 廣活平野와 錦江이란 水路를 통한 食貨의 利를 容易하게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地理的 利點인 內浦, 湖南平野와 禮唐平野의 經濟力은 百濟下代 中興期의 安定과 繁榮의 뒷받침이 되었다고할 수 있다. 聖王以後 諸王의 豪治에 힘입어 中興의 支柱와 棟樑이 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二) 泗泚河인 錦江을 길이 생각치 않을 수 없는데 都城인 扶餘에서 現 群山入口인 支伐浦까지는 短距리이고 이 支伐浦를 통하여 支那와 倭國等과 文物交流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때 皇華山城은 이곳 支伐浦~泗泚間의 中間地點에 位置한다.

百濟當時의 對外交通은 水路의 利用에 依存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水路利用에 있어 皇華山城의 位置는 使臣 接待에 必要한 城이 아니었던가 한다.

(三) 「王居東西二城」도 其實은 支那와의 交流와 倭와의 關係等 對外 交涉을 爲한 城의 必要에 依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四) 現 扶餘에서 「東西二城」의 位置를 推定하려면 扶餘城이 東城일 경우 舒川·保寧方面을 物色할 수 있는데 이와같이 推定될만한 百濟時代의 城址를 發見할 수 없다.

다만 國防上의 要件으로 萬里長成이란 傳說을 지닌 長距龍城址가 있을 뿐이여 國王이 居住할 만한 곳이거나, 國王과 關係를 갖는 傳說조차 全無함으로 扶餘泗泚城은 東城으로 位置한 곳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五) 扶餘 泗泚城을 西城으로 假定하고 東城을 찾아보면 現 公州 鷄龍面~論山邑이 이에 該當된다. 이들 地域의 百濟城址를 찾으면 그 數에 있어 他地域과 比較도 안될만큼 많은 數字이다.

이 諸城址中 江景 彩雲山城과 論山 皇華山城은 扶餘相距 五十餘里 里程으로 百濟時代 城址가 歷然할뿐 아니라 現在에도 百濟瓦片類가 出土되고 있으며 傳說또한 百濟 義慈王 遊宴處라 하는 城址들이다.

그런데 江景 彩雲山城은 扶餘에서 南方에 位置하고 있어 東城의 位置가 아니고 오직 論山 “皇華山城”만이 東城의 位置에 屬한다.

東國輿地勝覽 恩津縣 城廓條에 이 皇華는 “石築周一千六百五十六尺高七尺中有井二有軍倉”이라 하였으며 同山川條에서는 皇華山을 “在市津距令縣治西十里山有大石平廣附瞰津水號皇華台世傳百濟義慈王遊於其上”이라 記錄하고 있다.

그런데 이 皇華山城을 踏查하여 보면 上記의 記錄과 相異한 몇가지 點이 나타난다.

上記의 石築은 完全한 石築이 아니고 部分石築으로 現存하고 있으며, 中有二井 “有軍倉”의 位置를 確認할 수가 없고 推定建物址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皇華山城은 百濟의 國都中 東方의 城으로 批定될 수 있을 것이며 百濟國王이 居住했던 重要的 歷史的 事實과 義意를 가진 城으로(一部の 學者는 公州와 扶餘를 東西二城으로 보고 있으나 이들 兩都市의 方位 關係는 東西가 아닌 南北임) 百濟 國王의 居住記錄 內容을 記事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 皇華山城은 最少限 百濟國이 巡駐했던 城으로 百濟의 政治및 地方行政組織 國家經營에도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重要的 事實을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함께 皇華山城의 位置가 西海에서 國都 泗泚로 올 경우 現在의 錦江을 利用했을 것이 確實하다면 中國側으로부터 百濟國으로 오는 使臣들을 百濟王들이 이 皇華山城에서 迎接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 山城의 名稱을 皇華山城으로 呼稱하게 된 것이 아닐까 思料된다.

이와함께 더욱 重要的 것은 百濟가 外部로부터의 強要에 依하여 國都를 公州로 遷都하였는 바 이로 因한 豫備國都의 必要性을 切感하였을 것이 分明하였으니 早急한 말일른지는 모르나 百濟後期에 있어서 國都를 泗泚城과 益山別都 以外에, 本 皇華山城이 東城으로 있음을 볼때 新羅의 小京制度와 高句麗의 三京이 있는 것과 같이 百濟에서도 三京制度를 取하지 않았던가 하는 推定이 可能할런지도 모르겠다. 이에 對하여는 次後의 期會로 미루겠다.

八. 結 論

以上 皇華山城에 對하여 諸般 出土 遺物들의 考察과 史書및 諸文獻의 檢討·現地의 地名, 傳說等을 比較, 綜合하였는 바 遺物에 依한 考察結果 이 皇華山城의 築城年代를 發見遺物을 中心으로 할때 最下限線을 百濟 聖王十六年(A.D. 538年)으로 設定할 수 있으며, 築城當時의 이 山城의 名稱이 갈내(架乃, 葛那)이었음을 推定하였고, 이 名稱이 時代에 따라 갖내—笠乃—立乃—인내의 順으로 變化~移轉되어 現在의 陽村을 指稱하고 있다는 事實과, 더 重要的 것은 이 皇華山城이 百濟 時代의 一都로써 東城에 該當되어 西城인 扶餘 泗泚城과 兩立하고 있었으며 이 山城은 外國 使臣의 迎接을 爲한 城으로 이迎接으로 因하여 皇華山城이란 名稱이 由來되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앞으로 이 山城에서 發見될 遺物에 對하여서는 보다 세심한 觀心이 要望되며 이와 함께 皇華山城은 앞으로 더욱 研究·檢討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며 本稿가 百濟의 史的, 考古學的 研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